

특별인터뷰 ... 경기도의회 이주석 의원

“예결특위 적극적 활동으로 道費 확보에 주력”

지역 현안문제 해결 위해 시장 유기적인 協助체제 구축

이주석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선임되어 올 6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한다.
이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남부에 비해 SOC와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북부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2차 조직개편안에 의하면 경기도 2청 축소계획을 경기북부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부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것은 정책과 예산을 집중 배치하고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석 의원의 일문일답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지난해 실시된 5·31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로 당선되어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전(99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의원)에 도의원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경기도 사정을 잘 알고 있다. 경기도의회 자체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상임위원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 12조원과 경기도교육청 6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 감사하는 것이 예결특위 활동이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예산과 열악한 SOC를 연계시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방예산은 활동하고 있는 자치행정위 소관이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서가 없는 양주시와 연천군에 소방서가 신설되도록 했으며, 영종면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 7억원을 확보하고 포천소방서 증축비 예산을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증가와 더불어 이전이 필요한 송우 소방파출소 이전에 따른 예산이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 의정활동 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포천시와 연계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포천시 신을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7억5천만원을 비롯해 각 분야별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분야별 도예산 확보현황은 다음과 같다.
〈환경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비(일동청계산) 2천만원(도비),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84억원(국도비), 하수처리장설치비 114억4천500만원(국도시비), 하수관거정비사업 102억원(국시비), 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3억9천600만원(국도시비),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억2천800만원(국도시비), 자연형하천정화사업 23억3천450만원(국도시비),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11억400

만원(국도비), 축산폐수수집운반비 1억500만원(도시비),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3억6천900만원(도시비)
〈지역개발〉 광릉숲유도도로개설비 140억원(국비), 하남-일동간 도로개설비 106억(국도비), 광암-마산간 도로개설비 40억원(도비), 신평-삼곡간 도로개설비 20억원(도비), 하송우리-마산간 도로개설비 20억원(도비), 광암-신북간 도로개설비 20억원(도비)
〈도시환경〉 오지종합개발 자작리 공동창고1동 1억4천600만원(도시비),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24억9천187만5천원(국도시비),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38억5천700만원(국도비),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 1억5천만원(도시비), 장미미집행대지 보상사업 1억원(도비)

〈문화복지〉 소흘읍도서관 건립비 36억원(국도비), 포천직주리 부부송 토지매입비 1억7천만원(도비), 포천용연서원 서재터 발굴조사 3천만원(도시비)
〈도시사〉 시책추진보조금) 이가팔라-고모간 도로 10억원 확보, 일동수입교 가설공사 10억원 확보

▶2007년도 의정활동 계획

도의회에서 예결특위 의원은 다른 평의원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여부에 따라서는 지역과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올해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경기도가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할 생각이다. 특히 영평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도정질문을 할 생각이다. 포천지역에는 미군공여지 17만7천112평, 영평사격장 40만9천300평, 반관공여구역 주변지역 2,206만9천300평, 공여구역 주변지역 133만5천평 등이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포천시와 시민들은 군부대 시설 입지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다할 정책적 배려가 없다. 최근 포천시는 미국 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과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 포천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했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사업을 통해 포천시는 150만평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경기동북부 거점도시로 발전하는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반관공여구역에는 대학교나 종합병원, 도시공원, 복지 및 요양시설이 입지 할 수 있다. 포천시는 시 전체면적의 25%를 개발할 수 있는 풍부한 개발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포천시가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포천시의 또 다른 문제는 교육문제다. 지난해 외국어고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 관계기관에서는 의정부와 동두천에 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원 이주석

이주석 경기도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이 경기남부에 비해 예산과 SOC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예결특위활동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 체결에 대한 견해

포천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경기 제2교육청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포천시를 비롯해 의정부시와 양주시, 파주시 등 4곳이다. 제2교육청이 포천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포천시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포천시와 협조관계는

포천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로망 구축이 잘 되어야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과거 99년 축사에서 포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 도정질문한 바 있다. 이것이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박윤국 포천시장과 협조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도의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장이나 실국장 혹은 과장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브리핑을 한다.

이같은 포천시와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도의회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경기도 타 시군의 경우 청사내에 도의원 사무실이 90%정도 마련되어 있다. 물론 시청사 공간이 협소해 사무실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포천시의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이나 실국장, 과장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생각이다.

▶포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포천지역 경기도의원으로서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의원은 도 예산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다음은 포천시를 위해 경기도내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인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학생은 공부만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 시민은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포천시가 발전하고 다시 찾고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㉞ 포천지역 관광지 확대개발

산정호수 15만평 확장 한탄강 생태공원 조성

제4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지개발 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산정호수가 35만평으로 확대개발되고 한탄강 생태수변공원과 청계호수 생태휴양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에 의하면 제4차 경기도 권역 관광지개발계획이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정됐다고 한다. 제4차 경기도 권역 관광지개발계획은 2007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5년 동안 시행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산정호수는 생태권과 평화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존 20만평에서 35만평으로 확대 개발한다. 또 생태관광자원 강화와 신규 매력물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기존 시설지구 보완과 정비사업을 하게 된다.

아울러 한탄강 수계를 활용한 생태휴양 관광자원을 활용해 냉정, 화적연, 산정전, 비둘기산, 늘거리 5개지구를 지구별로 포천 한탄강 생태수변공원을 개발한다. 청계호수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난개발된 편성지구를 재정비해 수상 및 산악레저를 연계한 복합휴양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제4차 경기도 권역 관광지개발 계획은 새로운 관광자원과 상품개발함으로써 향후 5년간 경기도 관광 비전제시와 관광지개발의 기본방향틀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경기도는 대형 리조트와 테마파크 건설로 관광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경기도내 14개소의 법정관광지 등을 확대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포천 한탄강 생태수변공원과 청계호수 등을 생태휴양지로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연천 DMZ 및 접경지역 관광상품개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동두천 락 페스티벌 활성화 등 평화권 관광지개발, 여주/광주/이천 도자체험관광벨트, 남양주 다산문화재 등 문화권 관광지 개발, 제부도/대부도/공평 여촌체험마을 육성, 평화호 관광지 및 송탄관광 특구의 국제적 관광지개발 등 해양권 관광지 개발, 대장금 테마파크 한류체험 보완, 부천 영상문화단지 개발 등 도시권 관광지 개발 등이다.

이들 계획과 김포 덕포진 관광지를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포천사이트밸리 조각공원과 운악산 등을 비롯한 소요산권 관광휴양단지, 탑동관광단지 등은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법과 제도의 제약을 이유로 추진이 보류됐다.
아울러 경기도 브랜드 프로그램(BRP)을 구축해 시군의 특성화와 목적지 브랜드와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경기도와 시군 공동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통합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을 1단계(2007-2009년), 2단계(2010-2011년), 3단계(2012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누어 44개소의 관광지개발, 신규관광지 개발 2개소, 기존 법정관광지 확대개발 2개소, 리모델링 4개소 등을 관광진흥계획 세부사업 등에 반영해 추진한다.
제4차 경기도 권역 관광지 개발에 따른 비용은 총 5조5천811억3천5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9천284억900만원, 지방비 1조3천636억1천500만원, 민간 3조2천891억1천100만원이다.

또한 기존 관광지의 전략적 역할과 정체성, 자원의 콘텐츠 매력도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보완방향을 설정했다.
기존 관광지 평가결과 산정호수는 연간 6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호반관광지로 생태관광거점 및 평화관광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생태권 및 평화권 관광지로 육성하고 현재 20만평인 관광지를 35만평으로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정호수 관광지를 생태관광자원 강화와 신규 매력물을 투입하고 기존 시설지구 정비 및 보완할 방침이다.

평가결과 집중투자 관광지와 지속개발관광지, 집중투자 유보 관광지를 분류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포천 백운계곡과 장흥 유원지 등은 획기적인 관광지 재활성화 계획 수립이전까지는 대규모 투자를 유보하기로 했으며 최소한의 시설보완을 하기로 했다.

또 신규 관광지 평가체계를 마련,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자원재정비비 수급 및 산악레저를 연계한 복합휴양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평가결과 김포 덕포진 관광지를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포천사이트밸리 조각공원과 운악산 등을 비롯한 소요산권 관광휴양단지, 탑동관광단지 등은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법과 제도의 제약을 이유로 추진이 보류됐다.

아울러 경기도 브랜드 프로그램(BRP)을 구축해 시군의 특성화와 목적지 브랜드와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경기도와 시군 공동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통합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을 1단계(2007-2009년), 2단계(2010-2011년), 3단계(2012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누어 44개소의 관광지개발, 신규관광지 개발 2개소, 기존 법정관광지 확대개발 2개소, 리모델링 4개소 등을 관광진흥계획 세부사업 등에 반영해 추진한다.

제4차 경기도 권역 관광지 개발에 따른 비용은 총 5조5천811억3천5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9천284억900만원, 지방비 1조3천636억1천500만원, 민간 3조2천891억1천100만원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제9차 세계해외 한인 무역협회 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World-OKTA)



- ☑ 행사일시 : 2007년 4월 20일 ~ 24일
- ☑ 장 소 : 경기도 포천시 반월아트홀 및 산정호수 한화리조트
- ☑ 주 제 : "World-OKTA의 성장과 미래 전략"
- ☑ 지자체 협력 의제 : "경기도 중소기업 활성화와 OKTA의 역할"
- ☑ 참석대상
 - 세계 각국 OKTA 회장단 및 상임이사
 - 세계 각국 OKTA 지회 회원 총 300명 예상
 -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체 100사
- ☑ 주 최 : (사)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경기도, 포천시
- ☑ 후 원 : 산업자원부, KOTRA, 경기중소기업중앙회, 포천시의회, 포천상공회의소
- ☑ 후원연론사 : 중앙일보, 매일경제, 포천신문, 재외동포신문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 - 포천 *pocheon of fortune!*

“세계해외 한인무역협회 회원 여러분! 포천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